

중소 지원 기관장들의 소상공인·스타트업 '氣 살리기' 모색

김병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보증 21兆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내년 지원 규모 올해보다 1조 ↑
이달 내 지역신보 보증 비율 100%
'초저금리 대출보증'도 추가 선포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보증규모를 내년엔 올해보다 1조원 많은 20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이들을 위한 보증은 당초 18조5000억원이었지만 이를 다시 19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올 연말까지 추가로 5000억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김

병근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때일 수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증수요가 늘어 필요한 만큼 충분하고 불편하지 않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신보중앙회의 역할”이라면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역신보가 본연의 임무인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지난 7월 중순 신보중

양회 8대 회장에 취임했다.

5000억원이 늘어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인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1만3137개 기업에 4707억원을 지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트랙1)에는 최대 1억원, 임금근로자 고용기업(트랙2)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일반보증 평균인 1.04%보다 낮은 0.8% 수준이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기준금리) 대출보증'도 추가로 선보인다.

이는 지역신보가 보증비율 100%로

전액보증하면 기업은행은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을 갖고 대출하는 상품이다. 8월31일 현재 기준금리는 1.96%로 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유리하다.

김 회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 신보중앙회는 바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보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광현 “박수갈채 받는 창업지원 플랫폼 만들 것”

(창업진흥원장)

'특급 창업도우미' 비전 제시
'적시적소에 적량 지원' 목표
창업계와 협업 혁신 선포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창업진흥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비전을 내놨다.

스타트업 등 모든 창업자들이 인정하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4일 창업진흥원(창진원)에 따르면 김광현 원장은 전날 대전 본원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방침 선포식'을 갖고 “창진원이 정부로부터 '좋은 등

급'을 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창업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창업지원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진원은 이날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미션으로, '창업계가 인정하는 특급 창업도우미'를 비전으로 각각 제시했다.

창진원은 지난 4월 김 원장이 취임한 뒤 경영방침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문도 받았다.

창진원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프로 조직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시적소에 적량을 지원'한다는 전략목표도

함께 세웠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소통(Communication) ▲청렴(Clean) ▲협업(Cooperation)의 '3C'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 ▲창업계와 협업하는 혁신 조직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신속(Speed) ▲간결(Simple) ▲만족(Satisfaction)의 '3S'를 내세워 ▲생애 전 주기 창업교육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디딤돌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원장은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달

성하려면 누구한테든지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창업계가 박수 칠 때까지 혁신을 계속하자”고 강조했다. 창진원은 이날 선포한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절차 개편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창진원은 이같은 혁신과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올해 7000개, 2019~2020년 1만5000개, 2021~2022년 2만개 등 2022년까지 총 4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개편, 수요자 지향의 조직 개편, 양방향 고객 소통 창구로서의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기술창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김승호 기자



제1차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차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기욱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정책협의회에 앞서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한독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조정열

한독은 지난3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열 신임 대표이사 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3월 한독 이사회 사내이사로 임명된 바 있다. 조 신임 사장은 의약품뿐 아니라 소비재, 예술,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경영인이다. 이화여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하고 유니레버 코리아와 로레알 코레아를 거치며 브랜드와 소비재 비즈니스 경험을 쌓았다. 이후 다국적 제약사 MSD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 마케팅 상무를 역임하며 매출 성장을 이끌고 글로벌 제약 비즈니스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한국 피자헛 마케팅 전문, 갤러리 현대와 K옥션 대표, 카셰어링 업체 쏘카 대표로 활동하며 경영 능력을 인정 받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제주맥주 월매출 1400% 성장

제주맥주가 공식 출범 1년 만에 월 매출 규모가 140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맥주에 따르면 공식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8월 매출 대비 올해 7월 매출 규모가 15배 이상 성장했으며, 올해 5월부터 제주도에서만 판매되던 '제주 워트 에일' 판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이 353% 증가(가정용, 유통용 전체합산 기준)했다.

/박인용 기자

팅크웨어 블랙박스·틴팅필름 할인·혜택 쏘다

팅크웨어가 블랙박스, 자동차 틴팅필름에 대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일 틉크웨어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커넥티드 블랙박스' 인아이나비 퀸텀2와 아이나비QXD 1500, 자동차 틴팅필름 '칼트윈'(TX, LX, RX, AX)을 대상으로 제품 할인 및 증정, 타임세일 등을 펼친다.

우선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퀸텀2, QXD 1500' 커넥티드 패키지 구매 시 무상장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10만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선물로 준다. 또한 틴팅필름 칼트윈은 등급과 상관없이 전, 측, 후면 폴 시공 시 전체 금액의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타임세일도 한다. 블랙박스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이 행사는 프로모션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평일인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이나비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선착순 20명에게 '아이나비 QXD950 뷰 블랙 32G' 제품을 20만원 할인한 19만9000원에 판매한다.

이번 하반기 전사 프로모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나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 영동 햇포도로 만든 제철 '포도주스'

휴롬이 국산 농가와 협업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제철 과일주스를 차례로 선보인다.

휴롬은 포도 수확철을 맞아 포도 주산지로 유명한 충북 영동의 포도로 만든 포도주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휴롬 포도주스는 대표적인 포도산지인 영동 포도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현지에서 갓 수확한 햇 포도를 산지 직송해 일체의 첨가물 없이 바로 착즙해 만든 신선한 주스다.

충북 영동은 밤낮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도 풍부해 포도가 자라는데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어 우수한 포도 맛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포도 주산지다. 휴롬은 영동의 김덕진 농부와 손잡고 시

즌 한정 포도주스를 내놓는다.

휴롬은 앞으로 제철 시즌 한정 주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장 신선하고 건강한 주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출시된 영동 포도주스는 휴롬 공식쇼핑몰인 휴롬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초고압 살균처리를 통해 맛과 영양은 그대로 보존하되 유통기한을 늘렸다. 220ml 용량에 가격은 4800원이다.

/김승호 기자



휴넷 최신 교육트렌드 공유 'HRD 리더스 포럼' 개최

휴넷은 오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2019 HRD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HRD 리더스 포럼'은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기업의 인사 및 교육담당자들이 교육 트렌드를 공유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교육 솔루션을 소개하는 행사다. 행사에선 윤종록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포럼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승호 기자